



불교계 생협 활성화 기대

올해 1월 불교생협운동본부가 창립된 데 이어 19일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대표 정연, 이하 경불련)이 생협활동 조합 매장을 열었다.

서울 돈암동에 위치한 '정농생협'은 30여평 규모로 유기농 쌀과 야채, 유기농 가공식품을 취급한다.

개소식에서 경불련 김동훈 운영위원장은 "현재 농촌은 값싼 외국 농산물 때문에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형편"이라며 "생협을 통해 도·농 공동체 연계와 재정자립,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금현 경불련 부회장은 "여기에서 나온 수익금은 독거노인과 어린이 공부방, 실직자 자활기금으로 사용되며, 1주일에 한번씩 지역주민들에게 친환경적 삶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불교계 생협은 98년 외환 위기에 의한 경제 한파로 기능이 사회적 대안으로 부각되자 첫 움직임이 시작됐다.

불교계 일각에서는 생협이 귀농과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연결된다고 판단, 9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기념 특판에 이어 서울 용화사에 최초의 매장을 개설했다.

99년 4월 불교도농공동운동본부준비위원회 발족과 99년 9월 인드라망생협공동체 창립으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올해 1월 서울 봉은사, 서울 능인선원, 수원포교당 등 7개 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불교생협운동본부 생협활동조합' 창립총회가 개최된 데 이어, 이번엔 경불련이 첫 생협매장을 연 것이다.

다른 종교에 비해 아직 걸음마 수준이지만 이처럼 불교계 생협이 활성화되는 움직임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 생협은 단순히 안심할 수 있는 먹을거리 확보 수단을 넘어 부처님의 생명사상을 사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생협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불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다.

남동우(취재1부 기자)



◀이라크 티그리스강 서쪽에 위치한 정부청사 곳곳이 미국의 폭격으로 화염에 휩싸여 있다.



◀2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종교인들이 평화를 염원하는 풍선을 띄우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美, 이라크 공격 개시

대다수 국가 반대 불구 군사 시설 등 공습

작전 헬기추락으로 미·영군 16명 사망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던 지구촌의 평화는 깨졌다. 평화를 바랐던 간절한 염원은 전쟁의 광기 속에 묻혀 버렸다. 미국은 '평화'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전쟁'을 선택했다.

현지시각 20일 새벽 5시35분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시작됐다. 미국은 이날 이라크 바그다드 시내의 주요 시설과 쿠웨이트 접경의 이라크 군사시설을 대상으로 공습을 감행한 데 이어, 바그다드로 진격하고 있다.

미국은 유엔의 결의 없이, 또 세계 대다수 국가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쟁을 일으켰다. 21일 현재 미국의 공습으로 다수의 민간인이 사망 또는 부상했으며, 헬기 추락으로 미·영군

16명도 사망했다. 미국의 공습이 계속되면서 바그다드 시민들은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졌다. 미국과 영국 등 이번 전쟁에 참전한 나라들은 '테러 비상'이 걸리면서 또 다른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또 이라크가 남부 유정(油井) 최대 30여 곳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환경 재앙'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전쟁은 인간과 환경, 그리고 인류공존이라는 가치를 한꺼번에 잃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피의 대가로 얻은 자유가 무슨 의미일까. 못한 평화가 그 어떤 명분의 전쟁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우는 상황이다.

한명우 기자 mwahn@buddhapia.com

전쟁과 평화

전쟁과 평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인가?

인류의 항구적 평화란 이상에 불과한가? 이런 물음이 "전쟁은 국제 정치의 마지막 수단"이라는 말에 이르고 보면 '그렇다'고 수긍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평화를 말하는 수많은 종교의 가르침과 성현의 말씀은 그냥 말에 불과한 것일까.

인간의 바탕은 본질적으로 선한가, 악한가? 아니면 공존하는가? 그런데 왜 인간의 선은 악 앞에 무력한가. 현상은 마음의 반영이라는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현재 우리의 마음이 전쟁을 부른 것이라는 결론에 닿는다. 인간의 본성에 대해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는 때다.

“인류고통 시작됐다”

평화의 편에서 모든 노력 기울이자

조계종·ACRP 등 전쟁중지 촉구

총 앞에서 인간은 얼마나 무력한가. 그런데 그 총을 겨누는 사람 또한 사람이다. 인간에 대해 가장 잔인한 것이 사람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면 세상은 벌써 종말을 고했을 것이다. 그래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이정도나마 세상이 유지되는 게 아닐까.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대해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시민단체에서 전쟁 반대와 평화를 염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은 "인류에게 고통이 시작됐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도 이날 "전쟁을 반대하는 한국 불자들의

호소'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전쟁보다 평화의 편에서 서서 의미 있는 노력을 다해줄 것을 호소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종교인들이 우리의 호소에 귀 기울이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탁났한 스님은 18일 방한 공식 기자회견에서 "대화와 소통을 다시 하는 것만이 평화를 위한 가장 즉각적인 행동"이라고 말했다.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ACRP) 역시 21일 "세계의 모든 종교계가 각국의 정부와 국제적 기구들을 설득해 전쟁을 중지하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반전·반핵 선언문'을 채택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의 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구독 신청 안내
수도권: (02)737-0090 부산: (051)632-0064 대구: (053)768-8008 광주: (062)375-9986 전북: (063)255-2274 대전: (042)489-9390 충북: (043)258-3282 강원: (033)643-5599 동해 삼척: (033)521-6293 영주: (054)634-3429 경남: (055)353-1196

문화재위원 불교전문가 늘려야

법장 총무원장 “중단서 인사추천 바람직”

오는 4월 새로 구성되는 문화재위원회에 불교계 인사가 어느 정도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불교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불교계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하며, 따라서 중단에서 인사를 추천할 수

법장 스님은 18일 노태설 문화재청장의 예비 발언을 받은 자리에서 "우리 문화재의 60~70%가 불교 문화재"라고 전제하고 "불교문화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분과에서는 불교계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하며, 따라서 중단에서 인사를 추천할 수

관련기사 8면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 청장은 "문화재위원 외에 문화재전문위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답했다.

새만금 갯벌 살리기

‘3보 1배’ 정진 28일 시작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한 수경스님과 문규현 신부의 3보 1배가 28일부터 시작된다. 부안 새만금 해양갯벌에서 열

리는 '새만금 갯벌의 생명과 평화를 염원하는 3보 1배'는 탁났한 스님의 새만금 생평평화를 위한 메시지, 4대 종교가 함께하는 출발 선언문 낭독, 탁났한 스님의 걷기 명상과 함께 시작된다.

해양 갯벌에서 서울 청와대까지 약 305km를 50일 동안 지속하는 3보 1배는 매일 5~6km 정도 진행된다.

또 3보 1배단이 지나가는 대도시마다 환경법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일반인도 참가가능. 문의 (02)720-1654 남동우 기자

조계종 종정 법전스님은 24일 제31대 총무원장 법장스님 등을 포함하고, 참회를 통해 지취임을 축하하는 특별 법어를

사면으로 중단중흥 동참케

법전 종정, 총무원장 취임 축하법어

발표했다. '유정(有情)을 편안케 하는 것이 제불(諸佛)의 가업(家業)이니라'는 제목의 법어에서 법전

스님은 "전 종도를 포용하여 같 등을 통합하고, 참회를 통해 지 난날 허물을 깨닫고 새로 태어 난 사람들에게는 사면 복권의 길을 열어 종단의 중흥불사에 동참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세계평화 “한반도 도보 대행진” 행진 단원 모집

世界平和 "韓半島 徒歩 大行進" 行進團員 募集

대한적십자사 (총재 徐英勳)는 중앙일보사·환경정의시민연대와 함께 3월 30일부터 7월 7일까지 남북이산가족상봉 기원, 북한 어린이돕기 성금모금 (1km당 100원), 해안환경 보호를 위하여 100일간 한반도 해안일주를 도보로 행진할 친구간 및 구간 행진단원을 다음과같이 모집합니다.

● 신청자격 : 국토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

● 구간종주

- ▣ 행진거리 : 약 3,000km(100일)
- ▣ 행진기간 : 3.30 ~ 7.7
- ▣ 행진코스 : 서울 → 서해안 → 제주도 → 남해안 → 동해안 → 금강산 → 155마일 휴전선 → 서울
- ▣ 신청마감 : 3월 27일까지

● 구간종주

- ▶ 서해안 구간(약 800km) / 행진기간 : 3.30 ~ 4.28
서울(여의도공원) → 인천 → 당진 → 서산 → 보령 → 군산 → 목포

- ▶ 제주도구간(약 230km) / 행진기간 : 4. 29 ~ 5. 4
- ▶ 남해안구간(약 850km) / 행진기간 : 5. 5 ~ 5. 29
목포 → 여수 → 남해 → 마산 → 창원 → 진해 → 부산
- ▶ 동해안구간(약 600km) / 행진기간 5. 30 ~ 6. 16
부산 → 울산 → 포항 → 연덕 → 동해 → 강릉 → 속초(통일전망대)
- ▶ 금강산구간 / 행진기간 : 6. 17 ~ 6. 19
- ▶ 휴전선구간(약 485km) / 행진기간 : 6. 20 ~ 7. 7
민통선 155마일 → 서울
- ※ 구간 행진단원은 첫 출발일 5일전까지 신청가능 (단, 서해안구간은 3월 27일까지 마감)
- ※ 일반참여자자는 언제든지 신청서없이 동참할수 있음

● 행진지원 자원봉사원 모집 : 운전, 촬영(사진), 의료, 안전 등 행진과 관련된 분야 행진 전기간 또는 구간별로 참여가능

● 참가신청 : 홈페이지(www.peacekorea2003.com)에서 신청서 작성

● 출발일시 : 2003. 3.30(일) 10시 30분

● 출발장소 : 서울 여의도 공원(KBS 앞)

● 성금접수 : 온라인성금 - 농협 035-17-002187 예금주 : 대한적십자사 우체국 013045-01-000573 예금주 : 심시일반 ARS 060-700-1005

● 세부사항 문의 : 홈페이지(www.peacekorea2003.com)

운영전화 (02)3705-3657~9